불교학 사이트 등장

김영재씨 '붓다랜드' 개설
논문-교과목 등 열람 가능

불교학과 교수 홈페이지 접속…불교문화 · 종단정보도 수록

국내 불교논문과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의 교과내용 및 교수 홈페이지 등이 링크된 인터넷 사이트가 국내 처음으로 개설돼 한국 불교학 발전 및 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국대 김영재씨(불교학과 박사과정)의 노력으로 최근 문을 연 '붓다랜드 Buddha Land(http://www.buddhaland.co.kr)'는 불교학은 물론 불교문화 · 불교학 · 불교예술 · 종단 관련 정보를 서비스한다. 이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끄는 사이트는 불교학 사이트.

불교연구소 및 동국대 불교대학과 대학원 불교학과의 학문적 성과를 링크하게 될 불교학 사이트에는 교수논단, 학과 수업내용, 석 · 박사과정의 초록발표, 학회지 등이 실린다. 김영재씨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불교 사이트가 대부분 사찰문화 불교역사 소개에 편중, 불교학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 아쉬웠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한국 불교학 관련 정보를 찾는 네티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문 지원과 함께 불교학 사이트에 개설돼 있는 교수 홈페이지는 목정배 권기종 김인덕 해주스님 등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4명.

교수 홈페이지에는 교수 개인의 약력을 학력과 전문경력, 학위논문과 발표 논문, 저서 및 역서 등으로 분류, 관련 학문분야의 성과물을 상세히 수록해 놓고 있다. 또 주요논문은 열람과 다운로드(내려받기)가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상의 논문열람은 무엇보다 한국 불교학의 수위를 세계무대에 그대로 선보인다는 점에서 학문적 발전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홈페이지 자료입력을 직접 하고 있는 해주스님은 "누구나 쉽게 열어볼 수 있는 홈페이지의 특성을 생각할 때 전공 학문분야가 한국 불교학의 한 부분을 대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수들이 앞으로 발표하게 될 논문이나 저서 등에 좀더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성과는 학과 및 교과 사이트를 통해서도 예상된다. 현재 동국대 대학원 교과 가운데 △여래장사상 △화엄일승교의(華嚴一乘敎義) △중관(中觀) △화엄문의요결(華嚴文義要決) △중국불교사 등이 개설돼 있는 교과사이트에는 강의내용은 물론 석 · 박사과정의 발표논문이 링크된다. 또 수업시간에 진행된 토론내용을 함께 수록하는 한편, 사이트를 통한 토론 참여도 가능하다. 이 방법을 통해 현재의 수업방식과 일방적 논문발표에 머물고 있는 세미나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붓다랜드' 인터넷 사이트 개설에 일조한 이지중씨(불교학과 박사과정)는 "게시판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수업내용과 논문, 과제물과 토론주제 등을 미리 공지, 다양한 사고와 토론을 이끌어 냄으로써 결과적으로 학문적 탐구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붓다랜드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동국대 대학원 불교교과 사이트.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승석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는 "학문적 성숙도가 떨어지는 논문이나 과제물이 인터넷상에 게재될 경우 한국 불교학 위상을 깎아내릴 수도 있다"며 "사이트 운영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신중함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영재씨는 'Buddha Land' 사이트를 국내 · 외 22여개의 인터넷 검색엔진에 등록,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불교학 사이트에 게재되는 강의와 교과내용을 단행본으로 출간, 그 수익금으로 교수 홈페이지 증설과 박사과정 연구자의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은 기자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미국 불교회

美 활동 불광산신도 공동체
대만 불경자료 손쉽게 검색

서구 사회에서 불교계의 우산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불교회(Buddhist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 이하 BAUS)는 미국에 거주하는 대만 불광사 신도들의 불교공동체이다.

이 단체는 연합체(Association)로서의 성격이 짙어 미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불교 종파에 대해 개방적이며 미국에 있는 불교단체들의 상호협력과 우의를 증진시키고, 각 단체간의 회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도모하고 있다.

△BAUS 사이트(http://www.baus.org/)는 '교리와 수행의 생활화'와 '대만 불교경전 발간'이라는 두 가지의 특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설됐다.

'교리와 수행의 생활화'는 미국불자들에게 활용될만한 좋은 불교교육 교재를 만드는 것. 이를 위해 BAUS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미국 · 대만 등에서 출간된 불교교육 관련 교재들의 목록집과 불교 교수법 관련 목록집 발간을 서두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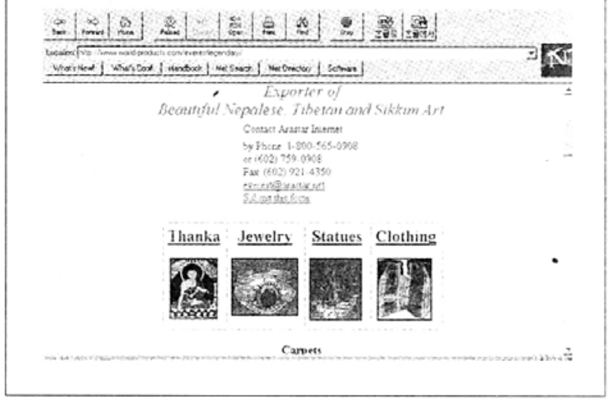
'대만 불교경전 해제본 발간'은 대만에 있는 각종 불교경전의 최신 해제본을 만들어, 미국불자들이 대만불교의 실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작업은 △국립대만대학 불학연구센터(The Center for Buddhist Studies, 이하 CBSNTU · http://ccbs.ntu.edu.tw/)를 지원해 추진하고 있다. 불학연구센터는 불교철학 · 역사 · 문학 · 예술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 자료는 ON-LINE상에서 중국어와 영어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불교회 사이트에서는 이중 불교경전 해제본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기능도 마련해 놓고 있어 미국불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해 대만불경 관련 자료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이 사이트는 뉴스레터, 인터넷 도서관, 팔만사천개의 문 △컴퓨터에서 중국어를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격월간으로 발간되는 '뉴스레터'는 97년도 7 · 9 · 11월호 98년도 1 · 3월호 등이 각기 제공된다. 이중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주 등에서 개원한 대만계 사찰 청연(Chuang Yen) 사원에서 개최된 '98 종교를 초월한 세계평화 대 기도'(98년3월호)에 대한 소식은 새로운 천년(밀레니엄)을 맞이하기 위해 부산한 美 종교계를 떠올리게 한다.

또 '인터넷 도서관'에서는 〈다섯 개의 눈(Five Eyes)〉(1979년 刊)을 전산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부처님 발자국' '불법-씨 뿌리기' 등의 글이 업로딩(올리기)되어 있다. 〈다섯 개의 눈〉은 중국에서 널리 읽혀지는 경전인 〈금강경〉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논서. 이 책에서 '다섯 개의 눈'은 육체의 눈, 천래(天來)의 눈, 지혜의 눈, 불법의 눈, 부처의 눈을 지칭하고 있다. '팔만 사천개의 눈'에서는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와 검색 가능한 정보를 링크(연결) 서비스 하고 있다.

현재 BAUS는 미국 내에서 연중 총회와 국제 대회로 미국 불자들의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대만에서 건너온 불교신도 상호간의 우의도 증진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오종욱 기자



국제원효학회 홈페이지 개설

국제원효학회(공동회장 송석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5월31일 개설했다.

한글과 함께 영문지원이 동시에 이뤄지는 국제원효학회 홈페이지는 △원효대사 △원효전서 △국제원효학회소개 △원효전서 영역 프로젝트 △원효연구자료 등이 링크돼 있다. '원효전서 영역 프로젝트'에는 2000년 2월까지 영역화 작업이 완료되는 21권의 원효전서와 각 번역자 목록을 수록했다. 또 '원효연구자료'에서는 〈금강삼매경론〉 등 원효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20여권의 저술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웹주소는 http://iaws-wonhyo.dongguk.ac.-kr. (02)260-3835

"열린종교만 살아남는다"

원광대 제1회 '열린정신' 포럼 열어

"글로벌화(globalization) 세계 속에서 종교도 '열린 종교'로 변화해야 한다."

원광대 열린정신연구회(회장 김성관)는 '글로벌 시대 문화다원주의 열린종교'를 주제로 5월28일 제1회 열린정신 포럼을 가졌다.

'글로벌化 세계와 열려진 정신'에서 신일철 교수(고려대 철학)는 "글로벌화의 세계에서 생존과 발전의 주체가 되려면 열려진 정신을 갖추어야 한다"며 "열려진 정신은 윤리적 종교적 '깨우침'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교수는 "지구촌 시대가 열리면서 '국경없는 세계'가 전개되기 시작, 무한경쟁 속에 사고방식과 행동을 혁신하는 것만이 살아남게 됐다"며 "열린정신은 글로벌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합리성의 정신으로, 곧 원통무애(圓通無涯)와 원융(圓融)의 불심(佛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천은 원광대 총장은 '문화 다원주의 속에서의 열린종교'에서 "21세기의 종교가 더욱 이상적인 사회공헌적 종교가 되기위해서는 어떤 측면에서건 지성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종교가 열린 종교의 성격을 가졌거나 그런 입장을 지향할 때 종교의 미래는 더욱 밝은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종교가 과거의 모습을 청산하고 열린 모습을 취한다는 것은 진리적인 길에 가까이 하는 것이지 결코 정통에의 모반이나 변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학술단신

'공과 연기' 2차 세미나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는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 2차 세미나를 13일 오후 2시 동국대 학술기념관에서 갖는다.

이번 주제발표는 △불교적 추론의 모형(김옥선 · 이화여대 철학과 박사과정) △불교와 의식(소흥렬 ·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이다.

12일 종교자유 심포지엄

국제종교자유협회(IRLA) 북아시아 태평양지회(사무총장 · 신묘다다오미)는 '종교자유 특별 심포지엄'을 12일 삼육대학에서 갖는다.

동국대 불교학부 김용표 교수의 '불교에서 본 종교의 자유' 등 '종교의 자유'와 관련 논문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0344)910-1517

'불교와 종교' 여름강좌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은 '여름불교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7월8일부터 8월28일까지며, △불교와 유교 △불교와 도교 △불교와 기독교 등을 강의한다. 수강료 6만원. (02)3411-6167

국제소식

부탄 탁트상사원 '불탔다'

2500m 절벽에 9세기 창건…복원 불가능

히말라야를 방문한 순례자들과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가보길 바라는 부탄의 탁트상(Taktsang) 사원이 4월21일 화재로 소실됐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화재는 순례자들의 과오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화재로 탁트상 사원은 복구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

탁트상 사원은 9세기경 국경 근처인 파로(Paro)와 씸푸(Thimphu) 사이의 높이 2천5백미터의 절벽 위에 세워졌다. 또 히말라야 지역에 불교를 최초로 전래했다는 비호(飛虎 · 날개 달린 호랑이)의 도움으로 세워졌다는 창건신화로도 유명하다.

그동안 부탄정부는 사원 보호를 위해 관광객 수를 제한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해 왔지만, 매년 수천명에 달하는 순례자들의 출입을 막지 못했다.

화재 당시 탁트상 사원에는 18명의 스님들이 사원을 관리하며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화재후 자취를 감춰 경찰이 찾고 있다. 또 사원에 안치되어 있던 부처님 진신사리도 행방이 묘연하다.

日 설치예술가 美 순회전 '열반' "감동물결"

설치예술가 마리꼬 모리(일본인 · 42)가 5월28일 L.A주립박물관(L.A County Museum)에서 마련한 전시회 '열반(Nirvana)'이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열반' 전시회는 주로 디지탈 기술을 이용한 설치 미술품으로 이뤄졌다. 어두운 톤(tone)이 흐르는 전시관에 비디오를 설치하고 3차원 디지탈 영상과 조형물을 설치해 놓았다. 또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전시관 내벽을 세우고 익살스런 동승(조형물)이 전시된 작품들을 지켜볼 수 있게 했다.

모리는 "세간 속에서 개개인의 존재들이 소멸되고 통합되는 과정을 반복해 보편적이고 조화로운 세계관이 구현된 정토의 세계를 구상화했다"며 전시회를 설명했다.

L.A주립박물관에 전시된 작품들은 이달중순까지 시애틀,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등 서부해안 도시에서 순회 전시된다.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201 - 생활불교편

菩提道次第

"대승불자를 위한 수행의 거울"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티베트인들의 성전(聖典)

옛날 인도에서 부처님처럼 존경을 받던 스승 아티샤는 소승과 대승을 망라한 『보리도등론(菩提道燈論)』을 결집하였고, 티베트의 스승 쫑카빠 또한 그 뒤를 이어 『보리도차제』라는 책을 만들었다. 그 뒤 티베트에서는 이 『보리도차제』에 의거한 여러 경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책은 위의 경전에 의거하여 선정이나 지혜, 공성 등 누구나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만 간추린 것이다. 궁극적인 깨달음을 노래하지만 그것보다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기초 수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책이다. 삼세 인과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절대적 신앙을 가진 티베트인들의 정신이 살아 있는 이 책은 생활 환경과 사고방식이 확연히 다른 우리 불자들에게도 소중한 가르침이 될 것이다.

●초펠 스님 편역●
B6 변형 178쪽/값 4000원
여시아문 펴냄

삼사도에 따른 수행의 길 제시

보살의 서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수행 동기의 세 가지 차원 즉, 삼사도(三士道)에 따른 수행의 길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수행의 첫 단계인 하사도(下士道)의 가르침은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윤회의 좀더 높은 단계로 환생하기 위해 공덕을 쌓고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중간 단계인 중사도(中士道)는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 번뇌를 끊고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 수행해 가는 길을 가르친다.
최상의 단계인 상사도(上士道)는 보리심을 발하고 보살행을 닦아 중생들을 구제하는 실천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티베트의 학승 초펠 스님이 한국말을 배워 직접 편역한 티베트인들의 수행지침서 『보리도차제』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